

한미약품 128940

사노피, LAPS Insulin 115 권리 반환

●
제약/헬스케어/바이오
 Analyst 이태영
 02. 6098-6658
 taeyoung.lee@meritz.co.kr

한미약품이 랩스커버리 기반의 파이프라인의 일부 권리를 사노피로부터 반환받음. 계약금은 기존 4억유로에서 2.04억유로로 변경되며,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은 기존 35억유로에서 27.2억유로로 변경.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2018년 말까지 계약금 차액 1.96억유로를 반환하기로 함. 해당 계약금은 회사 자체 회계적 사유로 2015년말 50%인식, 나머지는 분할인식 하기로 되어 있음. 2016년 3분기까지 인식된 계약금은 약 639억원으로 기말에 매출 취소 처리 예정

회사가 공개한 세부적인 파이프라인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음

- Efpeglenatide: 임상 3상 예정중인 파이프라인. 개발 마일스톤을 감액하고 개발 비용 일부 한미가 부담
- Insulin 115: 권리 반환. 국내 1상 진행중(NCT02302443)
- Efpeglenatide/Insulin115 콤보: 현재 전임상 단계, 계약조건 변경 없음, 한미가 주도적 개발

한미약품은 이에 대해 개발단계가 앞서있는 물질을 사노피가, 초기단계의 물질을 한미가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는 생산관련이슈에 따른 후속조치로 판단. 특히 이번에 반환받은 Insulin 115의 성공적 개발 없이는 Efpeglenatide/Insulin115 콤보의 개발 성공 역시 보장 할 수 없음. 해당 이슈는 한미약품이 기술이전한 랩스커버리 관련 파이프라인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점 제기. 한미가 스스로 본 문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 생산관련 문제 해소 및 임상 단계 진행 확인 전까지는 보수적 접근 권고.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6년 12월 2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6년 12월 2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6년 12월 2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이태영)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